

■ 법률 칼럼

# 영주권 갱신과 범죄 기록

최근 이민국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영주권 갱신을 준비하는 사람들 가운데 범죄 기록이 영주권 갱신 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문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영주권 갱신은 현재 본인이 영주권자라는 것만 증명하기만 하면 별 문제 없이 갱신이 되는 간단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영주권자에게 심각한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에 영주권 갱신 과정에서 문제가 되어 추방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통 가정 폭력, 아동학대, 살인, 심각한 상해 등의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갱신 절차와 별개로 갱신 신청자에게 추방재판 출두 명령서가 발부되어 추방재판 절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들은 영주권 갱신을 하는 경우, 본인이 관련된 범죄가 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인지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1996년에 개정된 이민법에 따르면 미국 입국 후 (또는 영주권을 받은 후에) 가정 폭력, 아동학대, 아동유기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시민권자를 제외한 누구나가 경/중범죄를 불분하고 실행 여부에 관계없이 추방 대상으로 간주됩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이 개정 이민법이 1996년 9월 30일 이후에 저질러진 범죄에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만약 위에 언급한 범죄가 있다면 그 범죄가 어느 시점에 저질러진 것인지를 잘 판단해 본인이 추방 대상이 되는지 따져보기 바랍니다. 만약 위의 범죄를 1996년 9월 30일 이후에 저질렀다면 영주권 갱신 시에 추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큰 흠결이 되는 범죄 (Moral Turpitude Crime)의 경우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영주권 갱신 시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 범죄는 살



인, 강간, 절도, 사기, 배우자 폭행, 납치, 아동학대 등이 포함됩니다. 이 도덕적 흠결의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으로 실제 형량이 6월 미만이고 최고 형량이 1년 미만인 Petty Crime을 제외한 그 이상의 실제 형량과 그 이상의 최고 형량이 가능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영주권 갱신 시에 추방재판의 대상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항은 영주권 카드를 갱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영주권자로서의 신분이 자동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갱신을 하지 않더라도 이민국 시스템상으로 여전히 영주권자입니다. 단지 본인이 영주권자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로서의 영주권이 없다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영주권을 갱신하지 못했다고 해서 불법체류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위에 언급한 내용을 잘 참고해 영주권자가 된 이후 형사법적인 범법 사실이 있는 경우 영주권 갱신을 하기 전에 반드시 그 범법 사실이 이민법상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하여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기 바랍니다.

사진=shutterstock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천관우 변호사

● LA Office: (213) 232-1655  
● OC Office: (714) 522-5220



매주 첫째주 월요일 라디오 코리아 이민상담 진행

■ 전문의 칼럼

# 최신 알츠하이머 치매 조기 검진 및 원인 치료

- 1) 아밀로이드 양전자 단층 촬영 PET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scan
- 2) 뇌 베타아밀로이드 확인
- 3) 아두카누맙 Aduhelm 베타아밀로이드 제거 치료제 투여

치매란 정상적으로 활동하던 사람이 지적 능력을 상실하는 모든 경우를 일컫는 말이다. 즉 기억력, 사고력 등 뇌의 능력이 떨어지는 모든 뇌질환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따라서 치매의 원인은 여러 가지이다. 중풍에 의한 혈관성 치매도 있고 또 변형된 "베타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뇌에 축적되어 생기는 알츠하이머 치매도 있다. 일반적으로 치매라고 하면 알츠하이머 치매를 일컫는다.

베타아밀로이드라는 변형된 단백질 물질이다. 이러한 단백질이 뇌에 축적되어 염증을 일으키며 뇌세포를 사멸시킨다. 뇌세포의 사멸과 더불어 환자의 인지 능력이 나빠지는데 이러한 치매를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한다.

베타아밀로이드는, 아직은 확실하지 않지만 유전적인 요소와 환경적인 요소에 의하여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베타아밀로이드는 오랜 세월 점차적으로 뇌에 축적이 되는데 일단 치매 증상이 생기면 이미 베타아밀로이드가 약 15년 정도의 오랜 기간 축적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알츠하이머 치매라는 진단이 내려지면 많은 양의 베타아밀로이드가 오랜 세월 뇌에 쌓인 것이다.

현재 사용되는 모든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 약물은 베타아밀로이드가 축적되는 것을 막지 못한다. 뇌세포의 사망과 더불어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호르몬의 감소가 오는데 기존의 모든 치매 약은 이 부족한 아세틸콜린 신경호르몬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충해주는 역할만 한다. 원인 치료가 아닌 증상 치료다. 약을 꾸준히 잘 복용하여도 베타아밀로이드는 지속적으로 축적이 되고 뇌세포의 사멸과 더불어 인지 장애 또한 계속 나빠진다.

하지만 근래에 미국 FDA에서 새로이 허가한 아두렘(Aduhelm)이라는 치매 치료제는 기존의 증상 치료제와는 다르다. 베타아밀로이드를 뇌에서 제거해 주는 약물이다. 따라서 알츠하이머 치매 증상이 시작되기 전, 뇌 양전자 단층 촬영(PET Scan)으로 베타아밀로이드의 상태를 조기 검진하여 베타아밀로이드를 미리 제거하면 치매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예방 치료다.

위내시경으로 위암 조기 검진을 하듯 또는 자궁암 검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것 같이 뇌 양전자 단층 촬영으로 베타아밀로이드를 일찍이 진단하여 치매가 생기기 전 원인을 제거 치료하는 것이다. 따라서 알츠하이머 치매를 조기 진단하여 예방이 가능해진 것이다. 고령화 시대와 더불어 이제 치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게 되었다.

시스템 통증병원 & PFP 센터  
박재우 MD  
(714) 389-7000  
4940 Irvine Blvd, #203  
Irvine, CA 92620(시온마켓 몰)



# 프리미어 공인세무 그룹

세금보고 미국 전 지역 서비스



- 세금보고
- 법인설립
- 해외자산보고
- 연체세금 해결
- 세무감사대행
- 상속, 증여세금보고

PREMIER TAX GROUP (714)530-2033  
8942 Garden Grove Blvd, #203, Garden Grove, CA 92844

각종 세금 관련 상담 및 문의  
info@isemusa.com  
taxcapital@gmail.com